

# '지역' 한계 극복한 지방서점가의 명문

## 부산지역 책문화의 터줏대감 '영광도서'

부산에서 이름난 서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점을 꼽으라면 이 지역 사람들은 영광도서를 들기를 주저않는다. 역사로 따지자면 그보다 더 오래된 서점도 적잖지만 대표성을 지닐 만큼 신뢰를 얻는 것은 서점다운 서점, 즉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 유수의 대형서점들에 비견될 만큼 취급품목이 다양한 점과, 원하는 책은 언제든 허탕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영광도서 자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 또한 적지 않은데, 전국 각 대학출판부와 연결, 간행서적들이 모두 들어오는 점과 방송통신대학 교재, 산업연구원, 공업표준협회, 생산성본부 등 여러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 이를 필요로 하는 소수독자들에게까지 편리를 제공하는 배려가 그것이다. 이는 곧 지방서점으로는 보기드문 영광도서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서점 대표 김윤환(41)씨는 항구도시 부산의 특징을 서점운영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고객의 흐름변화가 큰 점이라고 말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자주 들르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더니 몇년후 직장인이 되어 다시 나타난다든가 하는 예가 그것이라고.

현재의 매장규모는 280여평. 1~3층이 매장이고 4층은 사무실과 납품과, 그리고 서고 300평 등 총 600여평이다. 서고가 매장보다 더 큰 평수를 차지하는 데 지방서점의 애로점이 있다고 한다. 서울에는 출판사가 밀집해 있어 주문하면 곧 가져올 여건이 되지만 지방은 주문에서 받기까지 최소한 3~10일이 걸리



영광도서 대표 김윤환씨.

기 때문에 적어도 10일간의 판매량은 항상 보유해 두어야 한다는 것.

영광도서가 지금과 같은 외형과 내실을 쌓기까지는 20여년이 걸렸다. 사장 김윤환씨가 전신인 '영광서점'을 서면의 시장통에 차린 것은 69년 10월. 시작은 한평반 크기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비마련을 위해 고향인 경남 함안을 떠나 부산에서 서점점원으로 2개월간 일했는데 남의 집에서 일해 돈벌고 공부한다는 게 여의치 않자 직접 고서점을 냈던 것. 자전거를 타고다니며 헌책을 수집, 당시 서면 부산상고 부근과 보수동에 밀집해 있던 헌책방에 절반 정도를 넘기고 나머지는 가게에 쌓아두고 책없어 공부 못하는 고학생들에게 헐값에 팔았다. 지금의 위치로 옮겨와 1, 2층 102평짜리 대형서점을 낸 것은 78년 7월. 한평반에서 시작한 지 딱 10년째였다.

"대학 앞이며 서너곳에 벌여놓았던 분점들



영광도서의 매장 풍경.

을 통합, 지금의 위치에서 대형서점으로 확장을 시작하자 주변에선 극구 말리더군요."

반대의 이유는 서점의 대형화가 당시로서는 일반의 인식 밖이었고 또 2층까지 누가 책을 사러 올라가겠느냐는 것, 그리고 입지조건 문제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영광도서가 위치한 곳은 서면지역에서 유명한 술집·음식점이 밀집돼 있던 곳.

"제나름의 복안을 갖고, 우선 책은 꼭 학생만 사는 거란 생각을 버렸어요. 술집에 오는 손님도, 음식먹으러 오는 이들도 다 고객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여담이지만 나중엔 이웃 술집 호스리스들도 책사러 왔어요."

초창기에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공공도서관·대학 쪽으로 납품의 길을 뚫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 활로를 모색했다. 현재 부산지역 대학납품도서의 90% 이상을 여기서 하고 있고 FM프로에 1분간 독서캠페인을 10여년이 넘는

현재까지 광고비를 지불하며 해오고 있다.

영광도서의 1일 이용고객의 수는 2천~3천명 선. 이중 1/3이 실제 구매고객이다. 월 판매량은 단행본 16000권, 참고서류 14000권을 비롯 취미·레저·스포츠 66000권 등 총 14만여권에 이른다. 직원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포함 70여명.

최근에는 갈수록 전문화·정보화되는 사회 속에서 서점의 역할이 독자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쪽으로 기능이 넓혀지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컴퓨터관련 신간서적들의 목록을 소형책자화하여 학교 도서관 및 일반독자에게 무료배포(6만부), 큰 호응을 받았다. 이를 시발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부문별로 도서목록을 발행, 차후에는 종합도서목록도 시도, 독자서비스를 넓혀가겠다고 김사장은 밝힌다.

—정혜옥 기자

(구) 동보기획



참신한 기획,  
기발한 아이디어,  
젊은 감각들이 모여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결작만을 고집합니다.

■ 표지 디자인·본문편집·교정·제작·전산·수동사식  
영화·비디오 홍보디자인 및 PR기획  
기업·관공서·학교 등의 홍보기획 및 디자인  
상품·상호 등의 디자인 및 카피

서울·중구 충무로4가132-5 Q빌딩3층  
PHONE: 278-5883/279-1323  
FAX: 278-5883



학습만화, 아동삽화  
교과서, 참고서 컷·삽화  
TOTAL - ILLUSTRATION

일우 김영철  
TEL : 647-8926  
양천구 목4동 790-26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8000원  
전화문의: 732-1431~3